

중국은 지금

미중 부산 합의, 다시 한번 화해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리서치팀

I China Strategy Analyst 박주영 jyp1ark@kiwoom.com

SUMMARY

10/30 미중 양국은 부산 정상회담을 통해 대중국 관세 인하, 미국산 대두 구매, 양국 간 제재 중단 등에 합의하며, 양국 관계의 추가 악화를 방지했다. 펜타닐 관세 10%p 인하 조치는 중국의 경기 하방 압력 완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26년 경기 및 수출 성장 가시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합의는 잠정적인 타협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향후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나, 단기적으로는 투자심리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다.

관세 = 희토류 + 대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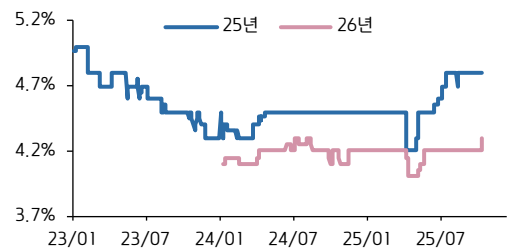
10월 30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담은 약 1시간 40분간 진행되었으며, 당초 예상보다 짧게 마무리됐다. 별도의 기자회견이나 공동성명 없이 종료된 점에서 일부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대중국 관세 인하, 미국산 대두 구매, 양국 간 제재 중단 등에 합의함으로써 양국 관계의 추가 악화를 방지했다는 점은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1)펜타닐 관세 인하(20%→10%) 및 11월 10일까지 유예된 24% 상호관세 1년 추가 유예 및 2)10/10 미국이 발표한 100% 대중국 추가 관세 철회를 이끌어냈다. 이를 위해 중국은 1)미국의 펜타닐 관련 단속에 협력하며, 향후 3년간 지속적인 대두 구매 및 2)희토류 수출 통제 1년 유예를 약속했다. 또한 최근 양국 간 긴장을 높였던 일부 제재 및 조사 절차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으며, 틱톡 관련 문제도 적절히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중국은 내년에 있을 중국 APEC 정상회의 및 미국 G20 회의에서 상호 지원을 통해 긍정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며, 정례적인 교류 채널을 유지해야한다고 언급했다.

펜타닐 관세 10%p 인하로 인해 중국의 경기 하방 압력이 완화됐다는 판단이다. 25년 5% 내외의 경제성장률 목표는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이며, 26년 경기 및 수출 성장 가시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금일 중국은 5천억위안 규모의 신행 정책성 금융수단을 전액 집행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핵심 프로젝트 건설을 지원할 예정이며, 총 투자 규모는 7조위안(24년 고정자산투자 금액의 14%)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수출 불확실성 및 공급측 개혁 등 영향으로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투자 지표(9월 중국 고정자산투자YTD, YoY -0.5%)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합의는 잠정적인 타협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향후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향후 합의 세부 사항의 추가 발표 과정에서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남아 있으나, 연말 정책 모멘텀과 단기적으로 완화된 지정학적 리스크가 투자심리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3분기 실적 시즌인 만큼 종목별 선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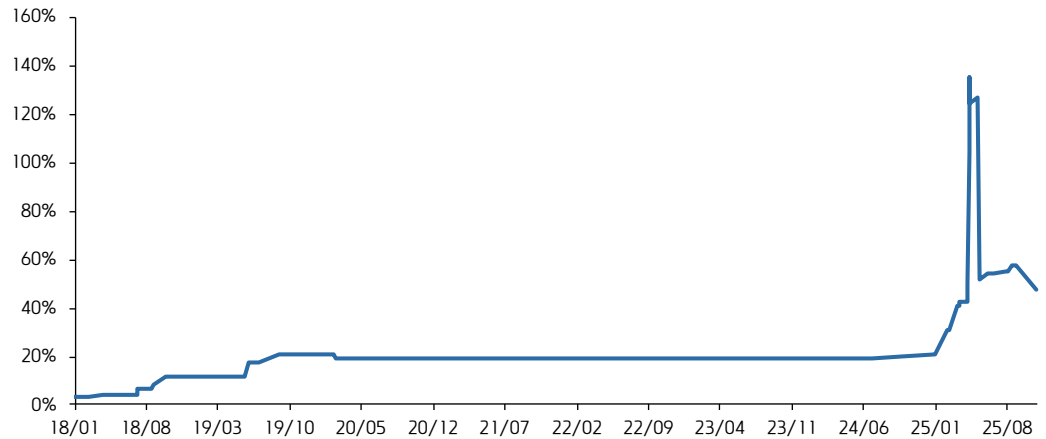
중국 연간 GDP 성장 전망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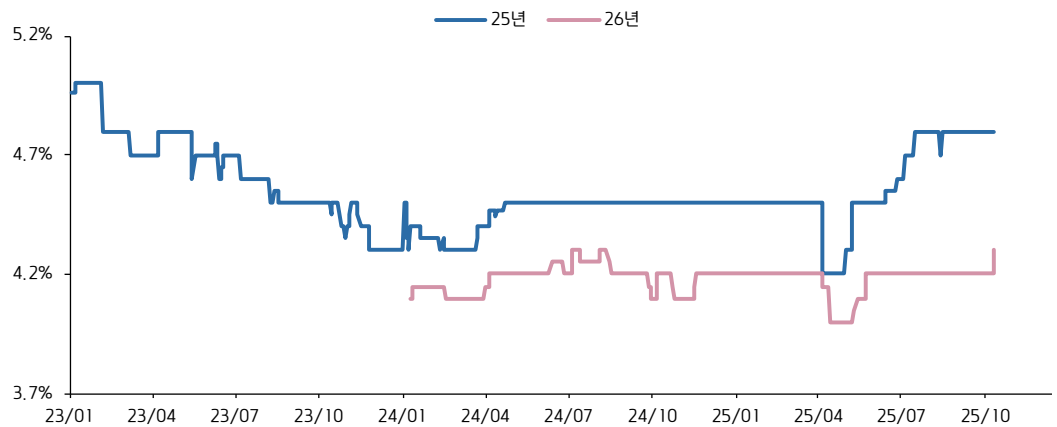
2025년 10월 31일 중국은 지금,
미중 부산 합의, 다시 한번 화해

미국의 대중 관세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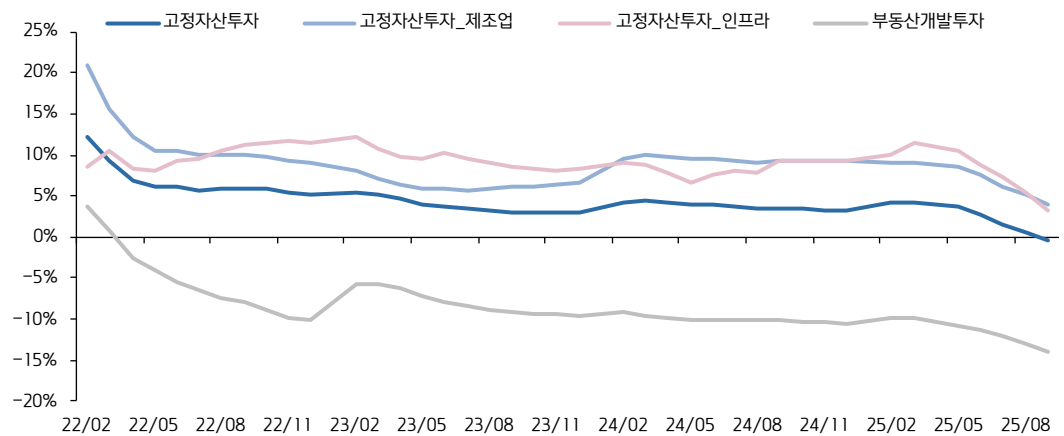
자료: PIIE, 키움증권 리서치

중국 연간 GDP 성장 전망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중국 고정자산투자YTD 증가율 추이



자료: 국가통계국, 키움증권 리서치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